

조광페인트, Jotun과 선박도료 합작

부산시, 11월16일 투자협약 체결 ... 2009년까지 2900만달러 투자계획

세계적인 도료 생산기업인 노르웨이의 Jotun이 부산시 강서구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2000만달러를 투자한다.

허남식 부산시장을 단장으로 유럽을 순방중인 부산시 시정세일즈단은 11월16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의 조광페인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Jotun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에 따라 Jotun이 부산에 본사를 둔 조광페인트와 합작한 조광요튼은 2009년 11월까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1만4000평에 2900만달러(Jotun 2000만달러에 조광페인트 900만달러)를 투자해 첨단 선박용 도료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공장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부지 임대료 및 세금감면 등 재정적 지원을 한다.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Jotun은 40여개국에서 36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5년 매출이 1조원에 이르는 세계적인 도료 전문기업이다.

부산시는 Jotun의 투자유치로 2005년 10월25일 지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 9만165평 가운데 92%인 8만2639평의 입주기업이 확정됐고 나머지 7524평에도 입주희망 외국기업들이 많아 연말까지는 완전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다른 외국기업들을 수용하기 위해 강서구 화전산업단지에 11만5000여평을 추가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확보할 계획인데 2009년 말 준공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16>